

예배 및 모임안내

2019-34호 2019년 08월 25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01	09. 08	09. 15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성 경 봉 독	장용환 형제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김영희 권사
안 내 위 원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잠7~31장)
2. 천막 전도집회 - 8월 31일(토)~9월15일(주일)까지 열립니다. 자체 예배 드립니다.
3. 성찬예식 -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4. 8월 생일 - 황희순(1일) 이수현(4일) 문정현(6일) 김수정(12일) 정용현(13일)
5.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천막집회(8월 30일(금)~9월15일(주일)를 위하여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1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1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4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유미영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렘 17 : 5 - 8(구p1078)..... 유미영 집사
(Jeremia 17:5-8)
- 설 교 Predigt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4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효종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8월 생일 축하** 친교실

나눔의 삶 방식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른 곳에 물을 나눠주지 못하는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해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다. 자연은 증발 현상을 통해 사해의 물을 거둬 갑니다. 사해는 자연적으로 하루에 약 700만 톤의 물이 증발합니다. 이런 증발 과정 때문에 사해의 물은 27퍼센트가 소금입니다. 이런 사해는 취득 본능적 삶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신의 삶을 간직하려고 애써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베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 삶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려는 유혹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자아 확장, 자아실현만을 위해 쓰려는 유혹입니다. 돈과 평판과 힘을 축적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면 당신은 스스로 이미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막8:35)”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며 친절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길입니다.

인간의 죄에서 고뇌하시는 하나님 / 류호준 교수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하나님은 일꾼 이전에 예배자를 원하신다. - A. W. Tozer